

중고령자들의 시간 이해가 ‘활동적 노화’ (Active Aging)에 미치는 영향*

이상훈 (남서울대학교 연구원)

I. 들어가는 말

II. ‘남은 시간’ 이해: 3단계 삶에서 4, 5단계 삶으로

1. 중고령자들의 3단계 삶 중심의 ‘남은 시간’ 이해
2. 중고령자들의 확장된 4, 5단계 삶과 ‘남은 시간’ 이해

III. 관계와 공동체, 그리고 활동적인 삶

1. 활동적인 삶을 위한 관계와 공동체
2. 활동적인 삶의 확장

IV. ‘활동적 노화’를 위한 신학적·성서적 시간 이해

1.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시간 이해
2. 전도서의 시간 이해: 중고령자들의 활동적 삶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3.12>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06643)

• ABSTRACT •

Influence of the Middle- and Old-aged People's Time Perception on Active Aging

Researcher Lee, Sang Hoon (Namseoul University)

South Korea will be faced with the need of retaining or reemploying of middle-aged and older workers due to shortage of labor stemmed from decline in working-age population. Middle-aged and older people's active aging are deemed to be highly required now in view of the current demographic situation. This paper focuses on remaining time in middle-aged and older people's lives in an attempt to address rapid decline in working-age population and then examines the likely impact that their perception of remaining time can have on their active aging. This study first analyzes and compares middle-aged and older people's three-stage life - education, work, retirement - and their four-, five-stage life cycle-centered perception of remaining time. We also look into the formation of intangible assets and find that relationship and community can help to expand active lives. This is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Heschel's understanding and Qoheleth's perspective on time.

Key words: Super-aged Society, Working Age Population, Remaining Time, Active Aging, Intangible Asset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서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이행해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또한 우려스러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고령사회 진입 전에 이미 시작돼 고령사회에 들어선 뒤 10~20년 만에 줄기 시작한 유럽 선진국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¹⁾ 그만큼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유발할 노동력 부족은 많은 중고령자들이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활동적인 삶에서 퇴진하는 현상을 동반한다.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풍부한 경력과 양질의 숙련이 바탕이 된 중고령 인력의 계속적 유지와 활용 또는 재고용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²⁾

중고령자들의 ‘활동적인 노화(active aging)³⁾를 위한 다각적 노력은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커지는 지금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고령자들

1)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보건복지포럼』 254(2017), 50-66.
 2) 최희선, “중·고령 인력의 임금과 생산성: 기업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2005), 47-63. 관련하여 연령별 분업에 기초한 중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 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211-227.
 3) 여기서 ‘활동적 노화’는 유급 노동이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및 돌봄 활동,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교활동,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도 포함한다. 이에 관해 다음을 보라. 이석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시간활용 변화와 적극적 노년생활”, 『노인복지연구』40(2010), 51-80. 본 논문에서 ‘활동적인 노화’는 중고령자들의 ‘활동적인 삶’을 가리키며 둘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의 활동적인 삶은 많은 경우 연령주의(ageism)에 의해 가로막히며 구체적으로는 생애의 ‘남은 시간’(remaining time)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인한 난관에 부딪힌다.⁴⁾ 나이로 타인과 자신에 대해 갖는 편견 및 고정관념이 개인 역량의 규정과 평가절하를 낳아 사회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차별 등이 일어나는 연령주의는 중고령자들의 ‘남은 시간’에 대한 (자신뿐 아니라 타자들의) 이해의 왜곡이나 가치와 의미의 축소를 가져온다.⁵⁾

‘남은 시간’에 대한 이해의 왜곡이나 가치와 의미의 축소는 사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생애주기에 따라 구조화된 ‘교육-일-은퇴’의 ‘3단계 삶’이 투영된 시간관념으로 말미암는다. 전통적인 ‘교육-일-은퇴’의 ‘3단계 삶’은 수명연장 이전에 형성되고 조율되어 있어서 이후 늘어난 중고령기의 ‘남은 시간’ 이해와 활동적인 개인의 삶에 혼란과 왜곡 현상이 초래된다. 그러나 수명연장으로 중고령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자신과 사회의 인식과 고정관념이 설정한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수명연장 시대를 살아갈 때는 “출생 이후 현재까지 물리적 시간으로 산출한 나이”를 말하는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을 활동적인 삶의 기준과 이정표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⁶⁾ 왜냐하면 생활연령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 돼야 할 “건강, 행동 양식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러한 접근방법은 “나이의 가변성(malleability of age)”을 대개 지나치기 때문이다.⁷⁾ 수명연장 시대에는 시간과 나이를 단순히 연결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더 오래, 훨씬 건강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생활연령의 “의미가 크게 변하는” 나이

4) 연령주의에 관한 논의의 예를 위해 다음을 보라. Applewhite, Ashton, *This Chair Rocks*, 이은진 역,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서울: 시공사, 2016), 29-62.

5) ‘배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서울: IVP, 2012), 97-120.

6) Gratton, Lynda and Scott, Andrew,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 『뉴 롱 라이프』(서울: 클, 2021), 71.

7) 위의 책, 74, 274.

의 가변성이 감안되어야 한다.⁸⁾ 나이를 가변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연령 인플레이션(age inflation)”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연령 인플레이션이란 생체나이가 젊어짐에 따라 “생활연령을 조정하는 것”으로 “생활연령 1년 동안 나이가 더 적게 드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연령 인플레이션과 나이의 가변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생활연령에 따른 나이 들과 남은 시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는 “나이 들의 다양성”에 주목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¹⁰⁾

본 논문에서 말하는 ‘시간 이해’란 우선, 생애 중 ‘남은 시간’을 생활연령에 기초한 ‘3단계 삶’에 획일적으로 연결하는 대신, 독립된 개체로서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 즉 시간과 삶의 단계 간의 경직되고 억압적인 관련성을 해체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생애를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다. “타인의 나이를 바라보는 관점”인 “사회적 연령(sociological age)”은 나이와 관련해 적합한 행동이나 역할상 사회가 개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보여준다.¹¹⁾ 나이와 관련된 사회 규범, 즉 연령규범(age norms)은 나이에 대한 “공동의 합의”와 “고정관념”으로 인해 중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으로 이어져 ‘남은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 축소시킨다. 이때 ‘남은 시간’은 왜곡된 연령규범으로 편향된 나이 문화와 관습에 경도되어, 수명 연장으로 늘어나고 확장되었지만 위축되고 축소된 이해와 그에 따른 행동을 낳는다.¹²⁾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 양이나 길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기능을 하며 효과를 나타낼 수 있

8) 위의 책, 70-71.

9) 위의 책, 75, 274.

10) 위의 책, 77.

11) 위의 책.

12) 위의 책; Lynda, Gratton and Scott, Andrew,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서울: 클, 2017), 272.

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느냐에 못지않게, 어떻게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느냐도 시간의 본질에 충분히 부합하고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다. 셋째, 공동체의 관점에서 개인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남은 시간에 대한 이해에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갖지 않는다. 활동적인 삶을 말할 때, 관계의 상호성 속에 있는 우리는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망을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와 관계 속의 구성원들에게 개인의 시간은 그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관계망으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공동체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남은) 시간 역시 이웃으로부터 분리돼 평가절하나 차등 평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령규범과 나이에 따른 전제와 가정에서 벗어나 시간을 공유하는 공존과, 삶을 공유하는 공생에 더 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참여를 통해 많은 활동적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필자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중고령자들의 생애 중 ‘남은 시간’(remaining time)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남은 시간 이해가 ‘활동적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생의 ‘남은 시간’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의미 있는 활동적인 삶에 대한 태도와 동기부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¹³⁾ 의미 있는 유, 무형의 다양한 참여와 실천으로 표현되는 중고령자들의 ‘활동적 노화’는 타당하고 정확한 ‘남은 시간’ 이해를 통해 자기 주도적 행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활동적 노화’란 유급 노동과 자원봉사뿐 아니라, 긍정적 가족관계와 새로운 네트워크를 위한 노력 및 새로운 기술과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역시 포함된다. 활동적인 삶이

13) 이신숙, “노인의 연령정체감이 실존적 정체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2, No. 2, April 2014, 151-164.

반드시 경제적 의미의 생산성 위주이거나 자원봉사 같은 육체적인 활동만으로 제한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경제적 활동과 육체적 참여만이 활동적인 삶의 동기나 기준이 될 때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남은 시간의 의미를 축소시켜 우리를 활동적인 삶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중고령자들의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3단계 삶에서 축소된 의미와 가치로 인해 '활동적 노화'에 어떤 영향 미치며 4, 5단계 삶에서 어떻게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II. '남은 시간' 이해: 3단계 삶에서 4, 5단계 삶으로

중고령자들의 생애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이해는 그 이전의 시간 이해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이전보다 줄어든 남은 시간이란 인식이 여생의 시간을 이전의 시간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의미다. 중고령기의 남은 시간에 대한 변화된 관념은 생애의 시간이 줄어든 물리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시간의 의미와 가치도 평가절하되고 그에 따라 삶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생애의 경로를 바꾸어 놓는다. 심리적으로 평가절하된 시간의 의미와 가치는 중고령기의 삶과 활동을 위축시켜 적극적인 노화를 낮설게 하여 활동적인 삶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균수명 65~70세의 틀에서 벗어나 수명 연장의 관점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1. 중고령자들의 3단계 삶 중심의 '남은 시간' 이해

시간에 대한 관념은 삶의 자리와 사회적 정서 및 문화적 경향에 영향을 받는다. 오랫동안 굳어진 교육-일-은퇴의 3단계 삶에 우리 사회와 개인은

익숙하다. 『100세 인생』에서 린다 그래튼(Lynda Gratton)과 앤드루 스콧(Andrew Scott)은 ‘학업’ 후에 ‘직업’을 갖고 ‘퇴직’하는 3단계 삶이 지배적인 20세기의 생활 패턴이 수명연장 시대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¹⁴⁾ 은퇴 연령과 평균수명 간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은퇴 후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20세기의 전통적인 3단계 삶이 우리의 의식에 뿌리 깊듯이 짧은 은퇴 기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은퇴 후 세 번째 단계에는 활동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생애주기와 시간 이해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때로는 상호 관련성이 지나쳐서 상호 축소와 위축을 유발한다. 3단계 삶에서 배태된 짧은 남은 시간 인식의 경향은 남은 시간이 길어진 수명 연장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돼 3단계 삶의 틀과 정서가 일으키는 착시는 늘어난 남은 시간의 심각한 축소에 이어 평가절하를 초래한다. 남은 시간에 대한 평가절하는 중고령자들의 삶의 위축과 활동의 제한을 낳는다. 이처럼 3단계 삶에 경도된 중고령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짧은 남은 시간 이해를 지니기에, 가치와 의미가 축소된 남은 시간과 활동적인 삶에서 퇴거하려는 의식 속에 고착돼 있다.

그렇다면, 이미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인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 ‘100세 시대’로 진입하였으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여전히 수명 연장 이전의 3단계 삶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단계 삶의 의식 속에서 발생하는 남은 시간의 의미와 가치의 심각한 축소는 특정 나이와 단계를 단순히 일치시키려는 경향과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일-은퇴의 3단계 중 셋째 단계, 곧 중고령자들에게 해당되는 때는 나이와 단계의 과도한 연결로 양자가 비분리 상태에 갇혀 중고령기의 남은 시간 이해는 은퇴 후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치와 의미가 축소

14) Gratton, Lynda, *The 100 Year Life*, 59-77.

되고 그들이 활동적이지 않은 삶의 세계에 머물게 한다. 이는 나이와 단계에 따른 삶과 행동의 범위나 경계가 지나치게 뚜렷해지고 고착화됨에 따라 나이와 단계 의식이 과도하게 이뤄져 활동적인 삶을 멀리하게 된 결과다.¹⁵⁾ 3단계의 삶에서는 특정 나이와 단계를 하나로 보는 경향과 이로 인한 중고령기의 세 번째 단계의 비활동적인 삶에 대한 인식은 ‘교육’을 받는 첫 번째 단계와 ‘직업’을 갖는 두 번째 단계의 시간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3단계 삶과 의식은 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생애와 남은 시간에 부합하는 ‘제2인생’에 대한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어렵게 하기에 은퇴 후의 활동적인 노화와는 다른 형태의 삶으로 귀착될 것이다. 3단계 삶이 흔히 초래하는 남은 시간에 대한 평가절하는, 인간은 변화에 맞춰 계속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낮은 것과는 관계가 있다.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한 “재창조(re-creation)”의 기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능, 건강, 인간관계” 등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에 대한 인식과 필요가 약할 경우 활동적인 삶에 대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으며 이는 시간 이해에 영향을 미쳐 남은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축소되기 때문이다.¹⁶⁾ 위의 사실은 4, 5단계 모델에서 행복과 좋은 삶에 요구되는 무형자산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 활동적인 삶을 시도할 이유가 되는 것과 대비된다.

2. 중고령자들의 확장된 4, 5단계 삶과 ‘남은 시간’ 이해

중고령자들은 3단계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재창조하기 위해 재교육을

15) 위의 책, 209-210.

16) 위의 책, 22, 197-197; Scott, Gratton,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 『뉴 롱 라이프』 (서울: 클, 2021), 82.

받거나 삶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거나 창업을 계획하는 4단계의 삶을 살 수 있다.¹⁷⁾ 혹은 과도기를 가지면서 타 분야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갖는 5단계 삶을 계획할 수 있다.¹⁸⁾ 4, 5단계의 삶은 남은 시간이 은퇴 후 여가로 채워지는 3단계 삶과 달리 필요한 변화를 위한 재교육 및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제2인생을 계획해 사는 것이다. 3단계에서 4, 5단계 삶으로의 확장은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중고령기의 남은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수명연장으로 중고령자들에게 더 이상 은퇴로 규정할 수 없는 생애의 기간은 새롭게 생겨난 삶의 확장이며 이는 삶의 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 시기로 간주된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시간 이해를 이전과는 달리해야 함을 뜻한다. 시간 이해란 여기서 3단계 삶의 관점에서 본 축소된 시간의 의미와 가치의 회복에 의해 늘어난 남은 시간뿐 아니라, 남은 시간을 은퇴나 지속적인 휴가가¹⁹⁾ 아니라 가능한 과도기를 거친 후 확장된 삶으로서 새로운 단계 삶의 때로 보는 이해를 가리킨다.

자신을 재창조하는 기회로 만듦으로 남은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는 4, 5단계의 삶에서 중고령자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은 3단계 삶처럼 어떤 나이가 특정 단계를 말해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새로운 단계는 “나이와 점점 더 무관해질 것”이며 이제 특정 나이가 어떤 단계를 더는 가리키지 않는다.²⁰⁾ 그래서 나이가 위치나 경력을 규정하지 않으며 종사하는 일이나

17) Sadler, William A. and Krefft, James H., *Changing Course*, 김경숙 역, 『햇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 사이, 2008), 268-269; Scott, Gratton, *The 100 Year Life*, 171-181.

18) Scott, Gratton, *The 100 Year Life*, 184-196.

19) Pearcey, Nancy R.,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홍병룡 역, 『완전한 진리』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98.

20) Scott, Gratton, *The 100 Year Life*, 23.

직책이 특정 나이나 단계를 말해주지도 않는다. 나이를 단계로부터 독립시키고 관습으로부터 해방시킬 때²¹⁾ 나이와 남은 시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피할 수 있고 나이에 따른 시간 의미의 축소나 평가절하가 방지될 수 있다.

4, 5단계 삶은 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생애의 결과 늘어난 3단계 삶의 세 번째 단계(은퇴)가 이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인한 유형자산(tangible assets)과 무형자산의 고갈에서도 필요성이 느껴진다. 먼저, 수명 연장 시대에 3단계의 삶은 주택, 현금, 예금과 같은 유형자산의 고갈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유형자산의 고갈이나 감소에 대한 대비는 필요에 따라 과도기를 거친 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감소나 고갈에 직면한 유형자산의 형성을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적인 삶으로 이어진다. 또한 유형자산만큼 중요하며 유형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무형자산, 곧 행복한 삶에 요구되는 우정, 지식, 건강 등의 고갈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과도기와 재취업은 활동적인 삶의 기초가 되며 남은 시간은 의미의 축소나 평가절하가 일어나는 대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늘어난 중고령기에 생산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4, 5단계 삶은 3단계 삶과는 같지 않은 시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 미래의 남은 시간에 정당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이때 우리는 “더 작고 멀어” 보이는 “미래의 어떤 시점”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현재에 가장 근접한 “보상과 사건”을 우선시하는 “현재편향(present bias)”에 빠지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할인(discount)”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²²⁾ 부여된 공정하고 동일한 가치와 의미가 축소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이해는 그

21) 위의 책, 272.

22) Scott, Gratton, *The New Long Life*, 79.

럼으로써 우리에게 미래의 자선에 주목하고 “미래에 투자할 의욕”을 갖게 한다.²³⁾ 린다 그래튼과 앤드루 스콧은 수명 연장으로 늘어난 중고령기에 미래의 삶에 대한 투자는 “복리적 시간”의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말한다. 수명연장 시대에 축소된 시간 이해에서 벗어나 길어진 수명에 요구되는 “직능, 건강, 인간관계”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역시 복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지적한다.²⁴⁾ 다시 말해, 수명 연장으로 ‘남은 시간’이 많을수록 활동적인 삶을 오랫동안 사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것은 길어진 인생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가져다준다.

위의 논의는 중고령 인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주변화와 과소평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중고령기가 시간의 고령화의 조건은 아니며 반드시 ‘삶’의 고령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한다.²⁵⁾ 이러한 관점에서는 길어진 (은퇴 후의) 삶에서 남은 시간은 가치와 의미가 축소나 할인되지 않고 또 다른 삶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투자나 재창조를 통해 중고령자들의 활동적인 삶을 위한 기회가 된다.

III. 관계와 공동체, 그리고 활동적인 삶

1. 활동적인 삶을 위한 관계와 공동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고 여전히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3단계 삶의 문화는 직업 활동을 통한 유형자산(금전적 자산) 형성이 두 번째 단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정,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참여 등의 무형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명 연장 시대에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23) 위의 책, 80.

24) 위의 책, 82.

25) 이상훈, “5.0 단계 삶을 위한 ‘변형자산’의 필요성 연구”, 『기독교사회윤리』50(2021), 209-213.

유형자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형자산의 형성이다. 중고령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 관계(우정)와 공동체적 삶에서 바라볼 때 의미와 가치의 축소나 왜곡을 멈출 수 있다.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은 남은 시간의 질과 내용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생애로 한정될 수 있는 제한된 남은 시간이 유대의 실천과 공동체 참여를 통해 자신의 시간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할 뿐 아니라 타자들과 나눔으로써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실제로 삶의 길이와 내용의 증가에 긍정적인 기여 효과를 가져온다.²⁶⁾

늘어난 기대수명을 고려한 인간 발달 단계의 과업과 미덕에 관한 연구도 관계와 공동체 지향적인 중고령기의 활동적인 삶의 필요성에 관해 잘 설명해준다. 중고령기에도 각 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일정한 미덕이 있는데, 50대는 “사랑을 베푸는 자아(loving self)”로서 진정한 친밀감으로 타자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며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과 양보를 감수한다.²⁷⁾ 60대는 돌보는 자아(caring self)로서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생성적인(generative) 행위”를 통해 보살핌의 미덕을 실천한다.²⁸⁾ 이 시기에는 황금률의 실천으로 서로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이러한 상호성의 경험은 “활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살게 해 의존적이고 요구하기보다 적극적이고 베풀게 된다.²⁹⁾ 이어서 70대는 더욱 “포용력”과 “인내심”을 갖추

26) Zaraska, Marta, *Growing Young*, 김영선 역,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서울: 어크로스, 2020), 257-285; Blackburn, Elizabeth and Epel, Elissa, *The Telomere Effect*, 이한음 역, 『늙지 않는 비밀』(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8), 315-318; Dunbar, Robin, *Friends*, 안진이 역, 『프렌즈』(서울: 어크로스, 2022), 29-44.

27) Capps, Donald, *The Decades of Life: A Guide to Human Developme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8), 106-107, 122; 베품의 관계와 공동체의 동인(動因)이 하나님의 영(성령)이란 점에 관해 다음을 보라. Volf, Miroslav, *Free of Charge*, 김순현 역, 『베품과 용서』(서울: 복있는 사람, 2008), 167-188.

28) 위의 책, 129.

고 “이해심”과 “동정심”이 많으며 “열린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³⁰⁾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며 세상과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³¹⁾ 80대에도 여전히 관계적 존재로서 기여하는 봉사에서 의미를 찾고 상호작용(interaction)과 정서적 유대를 중요시하며 타자를 배려하고 필요를 채워 주어 공동체 속에서 “인정”을 받고 “친절과 호의를 일으키는 상호관계적 기회”를 얻고자 한다.³²⁾ 이상에서 우리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도 중고령기의 남은 시간은 의미와 가치가 위축되고 축소되는 게 아니라 돌봄의 실천, 정서적 교감, 공동체의 참여 등 다양한 활동적인 삶을 통해 계속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고령자들에게 남은 시간의 회복과 확장의 효과를 가져오는 활동적인 삶은 나이 자체가 인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관한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조너선 라우시(Jonathan Rauch)는 인생 만족도와 나이 사이에 U자 곡선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라우시에 따르면 행복과 나이의 관련성을 테스트한 결과 중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출현하였다. 중고령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행복 곡선이 보여주는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egocentricity)에서 타인 지향성(other-directedness)으로” 이행되는 것이다.³³⁾ 다시 말해 중고령기에 나이 들에 따라 갖게 되는 새로운 역할은 “사회의 이익”과 이웃들의

29) 위의 책, 134-139.

30) 위의 책, 157.

31) 위의 책, 157-158

32) 위의 책, 180-189.

33) Rauch, Jonathan, *The Happiness Curve*, 김고명 역,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서울: 부키, 2021), 264; 관련하여 폴 레만(Paul Lehmann)의 “의도적으로 취약해지기(the willful acquisition of vulnerability)”개념을 위해서 다음을 보라. Lehmann, Paul,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34-37.

“번영”과 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³⁴⁾ 점차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중고령기에 “자기중심주의”가 차츰 감소하고 남에게 더 많이 공감과 연민을 나타내는 경향성은 활동적인 삶의 조건 형성에 해당하는 행동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⁵⁾ 중년 후반부터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참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중고령기의 남은 시간이 관계적이고 사회적이며 공익 지향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지속하게 하고 모두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활동적인 남은 시간이 삶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에 필요함을 뜻한다. 나아가서 중년 이후가 어떤 시기 못지않게 활동적인 삶을 사는 때라는 사실은 중고령자들의 남은 시간이 평가절하되거나 그 가치와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나이와 행복도의 “선명한 관계”³⁶⁾는 남은 시간 이해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활동적인 삶의 가능성은 남은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며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활동적인 삶을 줄이거나 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조너선 라우시는 비록 중년을 지나면서 “시간의 지평은 좁아졌지만 ‘관계’의 지평은 넓어”졌고 활동적인 삶을 사는 “역량은 더 향상”된다고 강조한다.³⁷⁾ 이처럼 중고령자들의 활동적인 노화는 그들의 계속되는 성장과 변화를 위한 미덕의 성취와 행복한 삶의 추구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무형자산의 증식을 통해 삶의 내용을 확장시켜 남은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낳는다. 인간의 수명

34) 위의 책, 295; Van Gelder, Craig and Zscheile, Dwight J.,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서울: CLC, 2015), 219; 번영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이에 비판적인 신학적 관점의 한 예를 보라. Volf, Miroslav,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서울: IVP, 2014), 89-113.

35) 위의 책, 286.

36) 위의 책, 134.

37) 위의 책, 265.

이 시간에 종속되나 같은 패턴으로 인간의 삶은 종속되지 않으며 시간의 양은 감소하나 동일하게 시간의 의미와 가치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활동적인 노화를 통해 늘어나 삶의 부피와 내용을 증가시켜준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활동적인 삶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활동적인 삶의 확장

3단계 삶이나 이에 맞춰진 생애주기에서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유·무형자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기에 자산의 고갈을 예방하고 자산의 형성과 증식을 가져오는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한다. 한편으로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더 많은 유형자산이 요구되고 이는 중고령 기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급 노동 기간이 더 길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수명 연장 시대는 생애가 길어지는 것에 상응하여 삶의 범위와 내용이 활동적인 노화의 형태로 늘어나야 하는 이유다. 다른 한편으로 모두가 추구하는 좋은 삶의 조건은 경제적 안정에 필요한 유형자산 뿐 아니라 길어진 삶을 생산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열쇠”이며 유형자산의 형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무형자산의 지속적인 형성이다.³⁸⁾ 그러므로 수명 연장 시대에 4, 5단계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주택, 현금, 예금 등의 유형자산이 중요하나 우정, 관계, 육체적·정신적 건강, 지식과 기술 같은 무형자산 역시 필요로 한다.

이처럼 수명 연장에 따른 중고령자들의 남은 시간을 은퇴나 여가가 아니라 또 다른 활동적인 삶(제2인생 길은)을 준비해 살아가기 위한 재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활동적인 삶이 반드시 경제적 의미의 생산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는 유형자산의 획득을 위한 경제활동에만 한정

38) Scott, Gratton, *The 100 Year Life*, 112.

되지 않는다. 좋은 삶의 조건이 되는 우정, 관계, 육체적·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포함한다. 예컨대, 전직이나 진로 전환 혹은 직업적 성취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공 분야 재교육과 다른 분야 전직을 목표로한 재진학 등도 활동적인 삶과 관계있다. 나아가 자기 탐색으로,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일 공간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만큼 포함될 수 있다.³⁹⁾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시도들이다.⁴⁰⁾ 이 과정에서 “자기 존재의 경계를 허물고 규범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것이 동반된다.⁴¹⁾

더구나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만큼 가족 양육과 돌봄 및 관계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회연결망을 유지하는 공동체 활동과 이웃과의 상호작용도 의미 있는 활동적인 삶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의미 있는 활동적인 삶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같은 건강한 삶을 위한 행동 지침을 따르는 것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⁴²⁾ 이러한 무형자산 형성을 위한 노력도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과 삶의 질뿐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만큼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명 연장에 따른 남은 시간의 증가는 활동적인 삶에 대한 이

39) 위의 책, 211-212.

40) 위의 책, 197, 213-215.

41) 위의 책, 197, 213, 215.

42) 위의 책, 132; Zaraska, Marta, *Growing Young*, 10. 또한 다음을 보라. Hauerwas, Stanley et al., *Growing Old in Christ*, 이라이프아카데미 역,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듦에 관하여』(서울: 두란노, 2021), 265-291. 노인들의 활동적인 삶에 관해서는 11장 “삶에 은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은퇴는 없다”(320-339)을 보라.

해의 폭이 넓어져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유급 노동과 경제적 관점에서 활동적인 삶을 정의하는 것은 삶의 지평과 활동의 가능성을 왜곡,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⁴³⁾같은 무형자산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노력도 의미 있는 생산적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활동적인 삶의 범위와 의미의 폭을 넓히는 것은 축소되고 위축될 수 있는 중고령자들의 활동적인 삶과 남은 시간의 의미와 가치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다.

IV. ‘활동적 노화’를 위한 신학적·성서적 시간 이해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기에 시간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시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내용을 특징 지운다. 중고령자들의 시간 이해와 ‘활동적 노화’ 간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중고령자들의 선택과 실천은 ‘남은 시간’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활동적인 삶을 선택하고 실행하게 이끄는 중고령자들의 시간 이해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관점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Abraham Joshua Heschel)의 사상과 코헬렛(전도서)의 주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시간 이해

먼저, 활동적인 삶에서 퇴거를 낳는 축소되고 할인된 ‘남은 시간’ 이해의 변화와 회복을 통해 남은 시간을 더욱 활동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을 시간의 가치와 의미의 확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43) Scott, Gratton, *The 100 Year Life*, 131.

『안식』 서두에 시사한 대로, 우리가 “소유”, “움켜잡”, “지배”, “정복” 주도적인 삶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살아갈 때 ‘남은 시간’의 가치와 의미는 축소될 위험에 노출된다.⁴⁴⁾ 그러나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회가 번영하는 것은 소유와 지배 대신 존재와 조화에, 정복과 움켜잡 대신 나눔과 내줌에 더 많이 달려 있다. “소유”, “움켜잡”, “지배”, “정복”을 달성하고 유지하고 누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존재”, “내줌”, “나눔”, “조화”는 그렇지 않으며 짧은 시간도 충분하다. 그것은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닌 삶과 관련된 문제다. 같은 맥락에서 긴 시간 동안 공간을 “지배”하고 사물을 “획득”하는 것보다 “통찰의 순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거룩한 순간들을 마주”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⁴⁵⁾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고립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 시간, 시간 전부, 나아가서 영원과 연결돼 있으며 심지어 순간조차 영원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남은) 시간의 많고 적음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지 않기에 각 시간의 가치의 많고 적음과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일생에 걸쳐 영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짧은 시간을 들여 영원을 얻는 사람도” 있으며 “선한 한 시간이 일생과 맞먹을 수 있고, 여러 해에 걸쳐... 잃어버린 것을... 짧은 순간에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헤셸의 언급에서 나타난다.⁴⁶⁾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양적 시간 이해, 곧 (특히 3단계 삶의 관점에서) 미래의 (남은) 시간을 짧게 인식하는 것은 시간 이해의 차이나 다름이 (가령, 4, 5단계 모델과) 아니라 시간 이해의 왜곡과 오류를 보여준다. 중고령기를 포함해 어떤 시기를 우리가 살든, 현재는 온갖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44) Heschel, Abraham Joshua, *Sabbath*, 김순현 역, 『안식』(서울: 복있는 사람, 2007), 42.

45) 위의 책, 42, 46.

46) 위의 책, 177.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뜻에서 가장 활동적인 삶이 가능하다.⁴⁷⁾ 시간 간에 가치의 차이가 없고 아무리 짧은 시간도 영원에 닿아 있어 영원한 의미를 갖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시간에 관한 한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 활동적인 삶은 반드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일들이 행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많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나 형태로서든 시간 자체, 모든 시간이다. 그래서 모든 순간(시간)은 비할 데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고 매우 가치 있는 일이 가능하기에 시간은 매 순간이 활동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짧은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로 인한 활동적인 노화의 저해 요인은 “시간을 일정하고 반복적이고 동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시각 때문이다.⁴⁸⁾ 반복적이고 동질적인 시간 이해가 시간의 길고 짧음에 대한 논의를 일으키고 시간의 양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는 특정 시간의 가치를 상대화해 차이를 만들어내고 어떤 시기가 다른 때보다 가치의 평가절하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헤셀에 따르면 성서는 동일한 시간은 없고 “모든 때는 저마다 유일하며, 그 순간에 주어진 하나밖에” 없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⁴⁹⁾ 이러한 관점은 어떤 시간도 자격이 있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활동적인 노화가 적절하지 않은 기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개개의 순간은 하나님 “현존”하시고 “또 하나의 창조 행위”이며 우리의 새로운 존재됨이 이뤄지기에 시간은 “지속적인 쇄신”으로 (남은) 시간의 양이 활동적인 삶의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⁵⁰⁾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의 가치와 의미는 양적으

47) 위의 책, 175-176.

48) 위의 책, 49.

49) 위의 책.

50) 위의 책, 180-181.

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한껏”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히려 줄어들고 제한된 남은 시간으로 인해 더욱 활동적이고 전념함으로써 시간을 온전히 향유하고 깊이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삶을 위한 ‘활동적인 노화’를 실천하게 된다. 우리는 유사한 관점을 전도서(코헬렛)의 시간 이해에서 발견한다.⁵¹⁾

2. 전도서의 시간 이해: 중고령자들의 활동적 삶

구약 전도서(코헬렛)의 세계관이 보여주는 시간 이해는 대표적인 단어인 ‘헛됨’(הֶבֶל, hebel)에서 발견된다. 히브리어 ‘헤벨’은 ‘숨(breath)’ 또는 ‘바람(breeze)’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헤벨이 이렇게 번역될 때 삶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금세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것을 뜻한다.⁵²⁾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남은) 시간의 길이에 부여된 지나친 중요성과 결정력 행사에 제동을 건다. 그런데 전도서는 ‘숨’, ‘바람’, ‘연기’ 같은 삶의 짧음을 상기시키면서 역설적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한다.⁵³⁾ 전도서는 즐거움의 삶, 삶을 사랑하고 한껏 사는 것이 단순히 허락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상회함을 일깨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10.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7-10).

여기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은 선택이거나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행

51) 코헬렛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보라. 박요한 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서울: 성서와함께, 1997), 50-52.

52) Gibson, David, *Destiny: Learning to Live by Preparing to Die*, 이철민 역, 『인생, 전도서를 읽다』(서울: 복 있는 사람, 2018), 23-24.

53) 위의 책, 202-204.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곧 우리가 티끌로 돌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 갈망이 언젠가 전부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다.⁵⁴⁾ 이어서 11장에서 전도자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전도서 11:9)고 말한다. 이것에 대해 데이비드 깁슨(David Gibson)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 “즐거움의 결여”는 하나님이 “최종 결산하실 때 해명을 요구하실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⁵⁵⁾ 계속해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의 활동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는 것은 “위법(offense)”이며,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언약적 축복”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한다.⁵⁶⁾ 전도서 11장의 이 부분을 데이비드 깁슨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기뻐하라”는 메시지로 요약한다.⁵⁷⁾

그렇다면 일시적임을 명확히 인지시키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구원자 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마치 “가장 성대한 잔치를 벌여 환영하시는 주인”과 같으셔서 헤아래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곧 입할 “하나님 나라의 성대한 연회”, 즉 해 위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염원하고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⁵⁸⁾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늘에 대한 향수를 품게” 하기 위함이다.⁵⁹⁾ 결국, 지금 즐겁게 사는 활동적인 삶의 이유와 그것이 (남은) 시간의 양과 상관없는 것은, 이 땅으로 가치와 의미

54) Seow, Choon-Leong, *Ecclesiastes* (New York: Doubleday, 1997), 371; Gibson, David, *Destiny: Learning to Live by Preparing to Die*, 203.

55) Gibson, David, *Destiny: Learning to Live by Preparing to Die*, 204.

56) 위의 책, 203, 207.

57) 위의 책, 201.

58) 위의 책, 170-171.

59) 위의 책, 170.

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오히려 완성된 형태로 영원히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의 근거는 “해 아래”에 대한 전도서의 의미에서 어느 정도 발견된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전 1:3)라고 질문한다. 그런데 “해 아래”란 ‘공간’이 아닌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 위 “영원”이 아닌, 이 땅에서의 “지금”을 뜻하고 지상의 시간, 이생의 삶을 말한다.⁶⁰⁾ 전도서는 “해 아래”가 존재하는 전부가⁶¹⁾ 아니며 “해 위 삶의 관점에서 해 아래 삶을 생각”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⁶¹⁾ 해 위 영원의 관점에서 지상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사는 삶은 남은 시간의 양을 포함해서 해 아래 삶의 여러 조건의 영향력이 감소하며 활동적인 삶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동의와 실천적 열정이 증가한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명령은 인생에 대한 이해에도 반영돼, 전도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인생(삶)은 “획득(gain)이 아니라 선물(gift)”이라고 교훈한다.⁶²⁾ 우리는 “부나 성공의 선물”을 얻기 위해 일과 사람을 수단화하지만, 전도자는 부와 성공을 가져다주든 않든 관계없이, 일과 사람 “자체가 그냥 누려야 할 선물”이라고 가르친다.⁶³⁾ 그런데 부나 성공의 선물을 얻기 위한 일과 사람의 수단화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긴 남은 시간이 요구되나 일과 사람을 단지 선물로 누리는 데는 짧은 시간도 중요하고 충분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든 삶을 사랑하고 최대한으로 살아야 하기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밖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60) Leithart, Peter J., *Solomon among the Postmodern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8), 100; Gibson, David, *Destiny: Learning to Live by Preparing to Die*, 35.

61) Gibson, David, *Destiny: Learning to Live by Preparing to Die*, 179.

62) 위의 책, 51.

63) 위의 책, 192-193.

그렇다면 만일 남은 시간이 적을수록 활기차게 살아갈 여지가 더욱 줄어들어 가는 현실은 전도서의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정되고 일시적이거나 자애로운 하나님은 선사하신 인생의 즐거움에 대한 명령은 남은 시간이 적을수록 더욱 우리로 하여금 삶을 “선물”로 받아들여 “심오한 기쁨”을 누리도록 촉구한다.⁶⁴⁾ 기쁨과 행복이 선택이 아닌 명령이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해야 한다면, 길지 않은 삶에 대한 인식과 많지 않은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더욱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 따라서 즐기라고 주신 선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언제든지 종결시킬 수 있는 죽음은 남은 시간을 보다 활동적으로 살도록 촉진함으로써 우리가 철저히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실패의 두려움에 위축되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정말로 살아있지 않은(not really living) 것처럼” 사는 것으로 죽음보다 나쁜 일이다.⁶⁵⁾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위축돼 활동적인 삶에서 퇴거하여 “성공” 중심의 삶과 단지 “예측 가능한 일의 여지만” 있는 삶을 사는 결과, “예측 불가능한 일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지 않고 “실패 가능성에 눈감은 삶”이 계획되고 살아진다.⁶⁶⁾ 그러나 전도서의 시각에서 모든 위험과 실패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 어떤 모험과 시도도 하지 않고 ‘안전’하기만 한 삶을 고집하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에 대한 전도서의 명령은 활동적인 삶을 위한 시도가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실천과 노력으로 이어지며, 수명연장으로 늘어난 남은 시간에 대한 평가절하를 막아 의미와 가치가 축소된 이해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다. 전도서는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일시적이며 금세 사라지는

64) 위의 책, 62.

65) 위의 책, 191.

66) 위의 책.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써 활동적인 노화의 조건으로 부풀려진 낯(남은) 시간에 부여된 중요성의 거품을 터뜨린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너무나 즐겁고 좋아서 “하늘에 대한 향수를 품게” 하고, 해 위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최종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 해명해야 하며 죽은 후에도 완성된 형태로 영원히 계속되기에 ‘남은 시간’의 점차적인 감소는 오히려 더욱 활동적인 중고령자들의 노화로 이어질 것이다.

V. 나가는 말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가져온 노동력 부족은 중고령자들이 활동적인 삶에서 퇴거하는 현상을 동반한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풍부한 경력과 양질의 숙련이 바탕이 된 중고령 인력의 계속적 유지와 활용 또는 재고용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중고령자들의 ‘활동적인 노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나, 나이로 타인과 자신에 대해 갖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개인 역량의 규정과 평가절하를 낳아 사회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차별 등이 일어나는 연령주의는 중고령자들의 ‘남은 시간’에 대한 이해의 왜곡이나 가치와 의미의 축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회복된 ‘시간 이해’를 위해, 생애 중 ‘남은 시간’과 ‘교육-일-은퇴’의 ‘3단계 삶’을 획일적으로 연결하는 대신, 독립된 개체로서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았다. 4, 5단계의 삶에서 중고령자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3단계 삶처럼 어떤 나이가 특정 단계를 말해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왜곡된 남은 시

간 이해에 의한 시간의 의미의 축소나 평가절하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중고령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개인주의적인 시각에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 관계(우정)와 공동체적 삶에서 바라볼 때 의미와 가치의 축소나 왜곡을 피할 수 있다. 유대와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은 남은 시간의 질과 내용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생애로 한정될 수 있는 제한된 남은 시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할 뿐 아니라 타자들과 나눔으로써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증가시킨다. 나아가서 경제적 활동과 육체적인 참여만이 활동적인 삶의 동기나 기준이 될 때 의미 있는 다양한 실천과 시도를 위축시키고 남은 시간의 의미를 축소시켜 중고령자들을 더욱 비활동적이게 한다. “선한 한 시간이 일생과 맞먹을” 수 있는 헤겔의 관점은 시간의 양에 부여된 지나친 결정권과 비활동적 삶에 대한 면죄부에 제동을 건다. 또한 전도서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금세 사라지는” 인간의 현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시간의 길이에 부여된 중요성의 거품을 터뜨린다. 인생(삶)은 획득이 아니라 “선물”이기에 일시적임에도 즐거운 삶을 명령하고 금세 사라지기에 더욱 활동적인 노화를 실천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중고령자들의 ‘남은 시간’은 더 적극적인 일과 활동으로 그들을 이끌 뿐 아니라 ‘남은 시간’의 점차적인 감소가 오히려 더욱 활동적인 삶, 그들의 활동적인 노화로 나타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 박선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 302(2017), 18-30.
- 박요한 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 서울: 성서와 함께, 1997.
-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보건복지포럼」 254(2017), 50-66.
- 이상훈. “5.0 단계 삶을 위한 ‘변형자산’의 필요성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0(2021), 197-224.
- 이신숙. “노인의 연령정체감이 실존적 정체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2(April 2014), 151-164.
- 이석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시간활용 변화와 적극적 노년생활.” 「노인복지 연구」 40(2010), 51-80.
- 이재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KDI정책포럼」 273(2019), 1-8.
- 최희선. “중·고령 인력의 임금과 생산성: 기업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2005), 47-63.
- Applewhite, Ashton. *This Chair Rocks*. 이은진 역.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서울: 시공사, 2016.
- Blackburn, Elizabeth, Elissa Epel. *The Telomere Effect*. 이한음 역. 『늙지 않는 비밀』.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8.
- Capps, Donald. *The Decades of Life: A Guide to Human Developme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8.
- Dunbar, Robin. *Friends*. 안진이 역. 『프렌즈』. 서울: 어크로스, 2022.
- Gibson, David. *Destiny: Learning to Live by Preparing to Die*. 이철민 역. 『인생, 전도서를 읽다』. 서울: 복 있는 사람, 2018.
- Gratton Lynda, Andrew Scott,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 서울: 클, 2017.
- _____.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 『뉴 롱 라이프』. 서울: 클, 2021.

- Hauerwas, Stanley et al. *Growing Old in Christ*. 이라이프아카데미 역.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듦에 관하여』. 서울: 두란노, 2021.
- Heschel, Abraham Joshua. *Sabbath*. 김순현 역. 『안식』. 서울: 복있는 사람, 2007.
- Leithart, Peter J. *Solomon among the Postmodern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8.
- Lehmann, Paul.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 Rauch, Jonathan. *The Happiness Curve*. 김고명 역.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서울: 부키, 2021.
- Pearcey, Nancy R.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홍병룡 역. 『완전한 진리』.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 Sadler, William A., James H. Kreffl, *Changing Course*. 김경숙 역. 『햇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 사이, 2008.
- Seow, Choon-Leong. *Ecclesiastes*. New York: Doubleday, 1997.
- Volf, Miroslav. *Free of Charge*. 김순현 역. 『베푼과 용서』.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 _____.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 _____.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 Van Gelder, Craig,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서울: CLC, 2015.
- Zaraska, Marta. *Growing Young*. 김영선 역.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서울: 어크로스, 2020.

논문투고일: 2022년 07월 16일

심사개시일: 2022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15일

• 국 문 초 록 •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유발할 노동력 부족으로 중고령 인력의 계속적 유지와 활용 또는 재고용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어 중고령자들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중고령자들의 생애 중 ‘남은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남은 시간 이해가 ‘활동적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중고령자들의 ‘교육-일-은퇴’의 3단계 삶과 4, 5단계 삶 중심의 ‘남은 시간’ 이해의 특징과 양자 간의 비교를 통해 남은 시간 이해의 왜곡과 회복에 관해 고찰한다. 이어서 ‘활동적 노화’의 내용으로서 긍정적 가족관계와 새로운 네트워크를 위한 노력 및 기술과 지식 습득 등 ‘무형자산’ 형성을 살피고,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 활동적인 삶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중고령자들의 ‘활동적 노화’의 실행 가능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신학적·성서적 시간 이해를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과 코헬렛의 시간 이해를 통해 살핀다.

주제어: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남은 시간, 활동적 노화, 무형자산
